

저축어록

꾸준한 저축이야말로
확실한 투자의 첫걸음



희망+

SBI저축은행 웹진형 매거진
2017 Winter Vol.12

SBI Story

SBI저축은행 2016 송년의 밤
2016 SBI 희망나눔행사
핀테크TFT 탐방

SBI Life

뮤지컬 <팬텀> 관람 데이트
성수동 아틀리에길 옛보기
겨울철 필수 비타민의 보고 3층사



희망+

SBI저축은행 웹진형 매거진
Winter 2017 Vol.12



표지모델
SBI저축은행 인천지점 노소라 사원

<희망+>는 웹진과 함께 펴내는 SBI저축은행 계간 매거진입니다.
SBI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011호(2017. 1. 10)

발행일 2017년 1월 10일
발행인 임진구, 정진문
발행처 SBI저축은행 홍보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빌딩 동관 9층
담당 SBI저축은행 홍보부 여성환 대리 Tel. 02-3416-6288
기획·편집·디자인 101디자인스튜디오 Tel. 02-548-5780

<희망+> 웹진
<http://sbiwebzine.co.kr>

SBI Story

- 04 SBI 포커스
SBI저축은행 2016 송년의 밤
- 08 SBI 스토리
2016 SBI 희망나눔행사
- 12 SBI 이슈
SBI, '2017 대한민국 재테크박람회'에 뒀다
- 14 SBI 희망뉴스
2016년 4분기 주요 소식
- 18 부서 탐방
핀테크TFT
- 22 SBI 새 얼굴
오토금융부 김승욱 과장 외 12명

SBI Life

- 28 달콤한 나의 가족
축복으로 피어난 둘만의 비밀
: 리테일기획부 김재홍 주임 &
지점관리부 임리나 대리
- 32 추천! 핫 플레이스
한국의 브루클린 '성수동 아틀리에길'
- 34 계절 밥상
겨울철 필수 비타민인 보고 3총사



SBI Story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Adios 2016

Welcome 2017



2016년을 열흘 남짓 남겨둔 지난 12월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에 위치한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2016년 SBI저축은행 송년행사가 열렸다. 임진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SBI저축은행 임직원 약 350여 명이 모인 이날 송년행사는 맛있는 음식과 수다,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한 행사와 축하공연, 두근두근 가슴 설레게 한 경품추첨의 시간까지, 단 한 순간도 한눈을 팔기 힘든 흥미진진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2016
SBI
송년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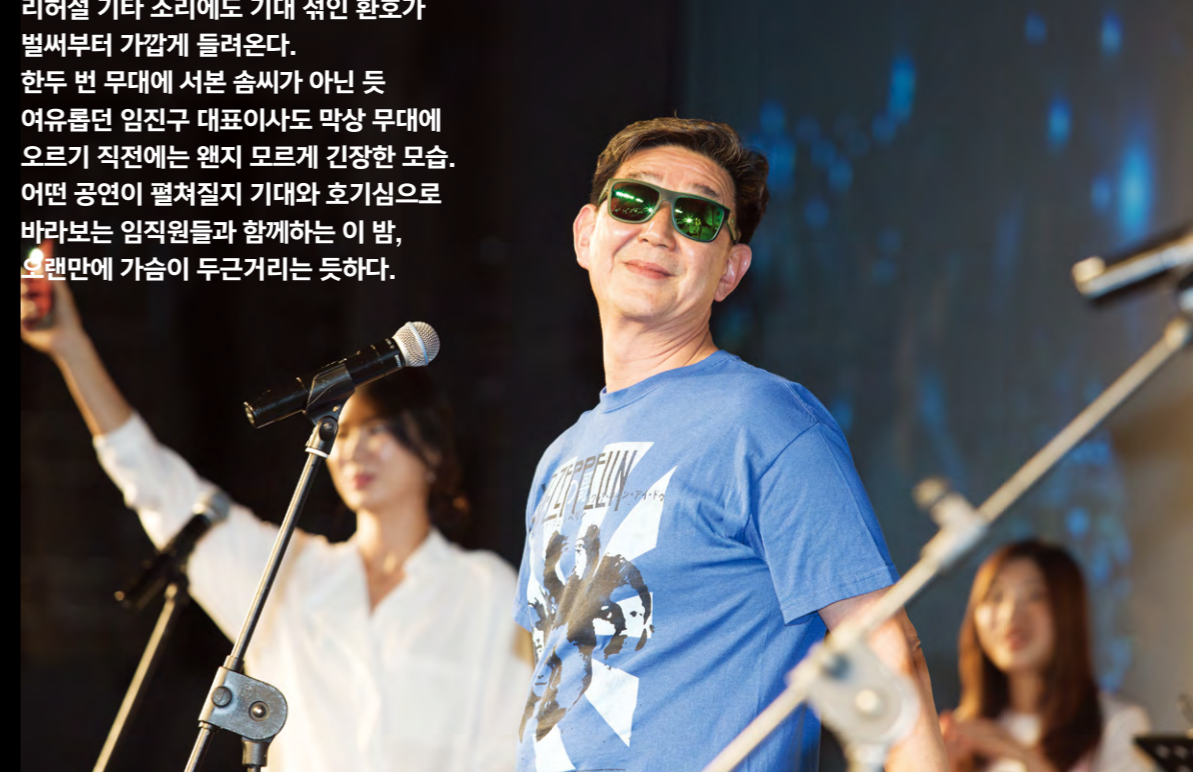


Adios

2016



행사장 밖으로 새어나오는 짧은 리허설 기타 소리에도 기대 섞인 환호가 벌써부터 가깝게 들려온다. 한두 번 무대에 서본 솜씨가 아닌 듯 여유롭던 임진구 대표이사도 막상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는 왠지 모르게 긴장한 모습. 어떤 공연이 펼쳐질지 기대와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이 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듯하다.



지난 한 해 SBI저축은행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영상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막을 올린 2016 송년의 밤. 곧이어 힘찬 드럼 솔로 연주로 등장한 친구밴드의 공연과 대졸공채 24기 사원들의 깜짝 치어리딩으로 행사장은 서서히 달아오르고……. 아, 그런데 잠깐 더 이상 분위기 뜨거워지기 전에 일른 저녁식사부터 합시다!



Welcome

2017

평소 안전하기로 소문난 SBI 직원들에게 이런 모습이?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출과 노래는 나에게! 2부 순서에 깜짝 MC로 등장한 개그맨 조세호 씨의 맛깔 나는 진행에 임직원들의 얼굴엔 실 새 없이 웃음이 번지고, 방송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DJ DOC 멤버들의 폭풍 라이브 무대에 행사장은 이내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2017년은 이렇게 힘찬 기운으로 출발합니다.





뜨거운 심장으로 따뜻한 겨울을 전하다

2016 SBI 희망나눔행사

“전 참 운이 좋아요. 얼마 전 저희 앞집도 무너지고, 연탄도 없어서 어떻게 이 겨울을 나나 했더니 이렇게 연탄을 잔뜩 갖다 주시고. 연탄 나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몇십 장 가져오려면 무척 힘든데, 이렇게 모두 함께 날라 주시니 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해결되고, 도중에 부서지지도 않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장수마을에 산 지 12년째에 접어든 양재숙(51) 씨가 두 손이 새카맣지도록 연탄을 나르며 땀방울을 훔치는 SBI저축은행 임직원들을 보면서 함박웃음을 짓는다.



맹추위를 녹이는 薰薰한 배달

찬바람이 매서워 두꺼운 옷을 걸쳐도 어깨를 움츠려야 했던 지난 12월 10일, 서울 삼선동 장수마을 일대에 SBI저축은행 임직원 200여 명이 연탄을 나르기 위해 모였다. 장수마을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동네로, 대부분 저소득자인 데다 기름보일러가 없는 집이 많다. 이런 어르신들에게 연탄 한 장은 겨울나기에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생필품일 수밖에 없다. 2015년부터 사회공헌활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SBI저축은행은 이후 소년소녀가장 후원이나 희망나눔봉사단 활동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해 왔다.

이번 연탄 나눔 행사에 참여한 백용재 주임(리테일영업2부)은 “온몸에 검정이 묻고 숨도 차지만, 부서 사람들이 다 함께 의미 깊은 일에 참여하니 힘이 절로 난다.”라며 열의를 보였다. 백 주임은 SBI저축은행에 들어온 지 올해로 6년째. 이전에 대구에 있을 때도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했던 경험이 있지만 오늘 같은 연탄배달은 처음이다. 백 주임은 “홀로 계신 어르신께 작지만 꼭 필요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활짝 웃었다.

연탄 4,000장의 희망

연탄이 필요한 곳은 총 14가구. 장수마을의 도로는 오토바이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된다. 자동차는 물론 수레도 무리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가파르게 반복되니 사람의 힘으로 연탄을 나를 수밖에 없다. 혼자서 연탄을 나르려면 몇 장을 겨우 감싸 안거나 지게로 실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자칫 발을 헛디디면 소중한 연탄을 땅에 떨어뜨려 부술 수도 있다. 이곳에 약 0.5m 간격으로 선 직원들은 심 없이 연탄을 날랐다.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얼굴이나 손에도 검댕이 묻지만, 한두 개가 아닌 몇백 장이 오가니 실수하지 않도록 긴장해야 한다. 작년 신당동에서 노하우가 쌓인 덕분인지 직원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다. 그런 덕분에 약 4,000장을 빠르게 각 가구에 배달했다.

이날 연탄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지켜보던 이근복(78) 할아버지는 이곳에 산 지 46년째다. “이 마을은 3월까지 무척 춥고, 우리 집은 흙으로 지어져 황소바람이 겨울에 기승을 부린다. 연탄이 많이 필요하다. 보통 하루에 3~4장을 댈다.”라면서, 창고 가득 쌓인 연탄을 바라보며 한결 마음을 놓은 표정이었다.



SBI 사랑의 TALK! TALK!

박인찬 상근감사위원

봉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동시에 우리 직원들 사이의 팀워크 지수를 높일 좋은 기회입니다.

유선영 사원(노원지점)

배추 속에 양념을 풍성하게 넣어 맛있는 배추김치를 만들어 전달하겠습니다.♥

임서연 사원(잠실지점)

우리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겨우내 김치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날은 연탄 나눔뿐 아니라 김장일손돕기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는 SBI저축은행 임직원 150여 명이 모였다. 소외된 이웃에게 보낼 김장을 할 생각에 너나없이 밝은 표정이었다. 이들은 먼저 고무장갑, 위생모자, 빨간 토시, 휴대용 우의로 김장을 담글 준비를 마치고 야외주차장으로 모였다. 먼저 물 빼기 조 14명은 푸른 장화를 신고 첩첩이 쌓인 배추를 바구니에 나눠 담았다. 준비한 배추는 무려 1,400포기. 강추위 때문에 차갑게 식은 배추를 만지느라 손이 얼기도 했고, 물을 뺀 배추를 움직이는 동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구니가 부서지기도 했지만, 직원들은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격려했다. 버무리기 조는 마늘, 배, 생강, 무, 새우젓 등이 들어간 속 재료를 배춧잎 사이로 정성스럽게 마무리했다.

이날 속 재료를 배추에 정성스레 무치고 있던 임서연 사원(잠실지점)은 “우리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대학교 때 인형극 봉사를 해봤지만 김장 봉사는 처음이라는 유선영 사원(노원지점) 역시 “배추 속에 양념을 풍성하게 넣어 맛있는 배추김치를 만들어 전달하고 싶다.”며 능숙하게 손을 움직였다. 박인찬 상근감사위원은 “봉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동시에 우리 직원들 사이의 팀워크 지수를 높일 좋은 기회”라며, “금융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희망의 온기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한 경험이 불러오는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밝히는 한 상자

복지관 지하에서는 생필품 분류와 포장이 한창이었다. 황도, 전복죽, 커피믹스, 굴, 신라면, 쇠고기 죽 등 월동에 필요한 음식들이 종류별로 가득했다. 한 가구에 필요한 만큼으로 이를 분류하는 것이 이들의 몫. 31명의 포장 배달 조는 겨울나기에 필요한 물품 중 빠진 것은 없는지 체크하고 분류하여 상자에 넣었다. 이렇게 분류한 생필품은 한부모·다자녀·조손·다문화가정으로 배달했다. 소득이나 자녀 등 소외계층 선정 기준에서는 탈락했지만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한 상자 한 상자는 무척 소중한 터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임진구 대표이사는 “토요일 늦게까지 자고 싶었을 텐데 나와 준 임직원들에게 고맙다.”라며, “봉사 후에는 마음이 채워져서 몸은 비록 피곤해도 다리 뻗고 편하게 자게 될 것”이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석한 내빈들 역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입을 모으고 ‘온정이 쌓이면 행복이 되고, 행복이 쌓이면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라며 참여 직원들의 따스한 의지에 감사를 건넸다.

숫자로 보는 SBI 사랑 나눔



1,400포기
사랑의 김장나눔



4,000장
사랑의 연탄배달



100박스
행복한 겨울나눔



SBI, '2017 대한민국 재테크박람회'에 떴다

- 기타오 요시타카 일본 SBI금융그룹 회장 기조 강연
- 모바일 신용대출 사이다 & SBI 사이다 보통예금 부스 설치

SBI저축은행이 지난 12월 2일(금)과 3일(토) 이틀간 서울 대치동 SETEC(세텍) 전시장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재테크박람회'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재테크박람회'는 세계적인 투자자와 국내외 경제·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테크 노하우를 공유하는 국내 최고의 재테크 행사로, 특히 박람회 이틀째인 3일에는 기타오 요시타카 일본 SBI금융그룹 회장이 '초저금리 재테크 불모지대에서의 생존법'이란 제목으로 기조 강연에 나서 화제를 모았다.

40년 경험이 제시하는 4대 투자 원칙

"40년 이상 산전수전 다 겪으며 세계 금융시장을 지켜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시장은 대다수의 사람이 예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초저금리시대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정답입니다."

기타오 요시타카 일본 SBI금융그룹 회장은 '2017 대한민국 재테크박람회'에서 일본의 저성장·저금리 가시밭길을 수십 년간 걸어오며 터득한 4대 투자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시장은 결코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2017년 세계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프랑스 대선, 중국 공산당대회, 미국 연방채무한도 증액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이 본격화되며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큰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둘째, 상식을 벗어난 시장엔 뛰어들지 않는다. 이 같은 투자 원칙은 인터넷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던 1990년대 미국의 닷컴 버블을 통해 만들어졌다.

셋째, 정답은 '글로벌 분산투자'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주식뿐 아니라 채권에도 투자해야 하고, 미국뿐 아니라 유럽이나 동남아에도 자산을 분배해야 하며, 현재는 금(金)을 놓여져볼 필요가 있다.

넷째, 큰 그림을 그려라. 기타오 회장은 "SBI그룹은 설립 초기부터 인터넷과 바이오(생명공학) 기술, 대체에너지와 에너지 보존 기술 등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투자 전략을 추구해왔다"며 "최근에는 블록 체인(디지털 화폐 거래 기술)을 중심으로 한 핀테크(fintech)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SBI그룹이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신흥국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도 '큰 그림'을 그리는 투자 작업의 일환이다.

반가워요! SBI

이번 재테크박람회에서 SBI저축은행은 모바일 신용대출 사이다와 SBI 사이다 보통예금 부스를 설치해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2015년 말에 출시된 이후 국내 대표 중·저금리 모바일 신용대출 상품으로 자리 잡은 '사이다'는 그동안 서민금융대상 금융위원장상, 매경 금융상품대상 특별상,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 스마트금융대상 저축은행 부문상 등 금융대상 4관왕에 빛나는 수상 실적을 올리며 서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Introduce 기타오 회장



기타오 요시타카(北尾吉孝·65) 일본 SBI금융그룹 회장은 일본 IT계의 전설로 일컬어지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핵심 참모 출신이다. 20년간 일본 노무라증권에서 일하다가 1995년 손정의 회장의 제안으로 소프트뱅크에 합류한 뒤 2006년 SBI금융그룹 회장에 올랐다. 현재 SBI금융그룹은 소프트뱅크로부터 독립해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SBI저축은행, 사상 최대 1조원 규모 소멸시효완성채권 무상 소각

SBI저축은행이 지난 12월 22일 총 1조원에 이르는 개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식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은 총 9,500억원으로 단일 소각 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써 불법 추심에 노출되었던 12만 명의 채권자들이 부채를 완전히 탕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소각식에는 임진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이 참석해, 관련 채권을 불태우는 퍼포먼스와 함께 서민들의 부채 탕감과 고금리 부담 경감을 실현하기 위한 윤리경영에 대한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이번 개인 소멸시효완성채권 1조원 소각에

이어, 관련 절차를 거쳐 2017년 상반기 중에는 남아 있는 1조 1천억 규모의 법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을 무상 소각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총 2조원 규모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무상 소각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SBI저축은행 임진구 대표이사는 “서민들의 부채를 탕감하는 데 모범을 보이기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면서 “저축은행은 서민들의 금융 안정화에 앞장서야 하는 제도권 금융기관이므로, 앞으로도 서민들의 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구청 소외 계층 아동 후원금 전달 및 영등포구장학재단 장학기금 전달

SBI저축은행은 지난 11월 11일 서울시 중구청을 방문해 관내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편부모가정, 저소득가정 등 소외 계층 아동들을 후원하는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최창식 중구청장이 참석해 소외 계층 아동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나누었습니다. SBI저축은행 임진구 대표이사는 “출범 이후 전사적 차원에서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있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으며, 흑자 전환과 동시에 사회공헌을 시작해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SBI저축은행 임직원들과 뜻을 모아 지속적인 수익 실현을 통해 더 많

은 소외 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2월 2일에는 서울시 영등포구장학재단을 방문하여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박옥순 영등포구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인재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임진구 대표이사는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의 영역과 범위를 확대해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입 텔러 6기 공채 채용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신입 텔러 공채 전형을 통해 11명의 신입 텔러를 선발하였습니다. 이번에 선발한 텔러 직원들을 우수한 금융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입문교육이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총 3주간 동양 인재개발원과 SBI저축은행 본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이번 교육과정을 회사의 이해, 인사제도, 준법경영, 직무 역할, 금융회계, 세무기초, 비즈니스 매너 등 총 11개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대한 생생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을 담당한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3주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금융업을 이해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지점 이전 오픈

SBI저축은행 삼성지점이 고객 접점을 늘리고 한 차원 높은 금융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24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이전 오픈하였습니다. 무역센터, 주요 기업체, 대규모 주거단지, 대형마트, 호텔 등 각종 시설이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고 지하철 2호선 및 분당선 선릉역과 인접해 있어 직장인, 거주민 등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고객들이 지점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삼성지점은 서울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테헤란로에 위치하여 인근 기업체, 상업시설, 대규모 주거단지를 기반으로 지점을 찾는 모든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차별화된 서비스와 금융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립기념식 & 올해의 SBI인 시상

SBI저축은행은 지난 11월 1일 페럼타워페럼홀에서 2016년 창립기념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임진구 대표이사의 창립기념사, ‘올해의 SBI인’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의 SBI인’은 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회사 발전에 기여한 SBI 임직원 가운데 9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수상의 영광은 ▲ M프로젝트TFT(SBI인 大賞) ▲ 박중규 홍보부장, IB부 주재덕 과장(이상 SBI인賞) ▲ 여신영업2부 전나라 부장, 리테일영업3부 허현구 과장, 부동산금융부 류승원 대리, 정보보호팀 조인철 대리, 전략리스크관리부 이용호 대리(이상 SBI인 Credo賞) ▲ 마포지점 김경주 주임(SBI인 고객감동 大賞)에게 돌아갔습니다.



SBI 사이다 보통예금 출시

SBI저축은행은 최대 연 1.9% 금리를 제공하는 자유입출금 통장 ‘SBI 사이다 보통예금’을 지난 11월24일 출시했습니다. ‘SBI 사이다 보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기예금 수준의 높은 금리와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품의 기본이율은 연 1.0%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1.9%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에 매월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시 0.2%, 스마트뱅킹(APP)으로 이체거래 및 예·적금에 가입한 경우 각각 0.1%, 체크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0.1~0.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월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실적만 있어도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 전국 모든 은행자동화기기의 출금·입금·타행이체 수수료(영업시간 내 면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가 횡수 제한 없이 면제됩니다.

출동하라! SBI 알파고

핀테크TFT

작년 한 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알파고’ 신드롬을 기억하시는지? 어느새 우리 앞에 부쩍 다가온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금융권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석력으로 고객을 위한 금융상품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금융의 알파고! SBI저축은행에도 바로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있다.





핀테크 기술로 SBI 경쟁력을 높이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를 일컫는 합성어. 최근 들어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IT·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면서 P2P 대출,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핀테크TFT는 바로 이 같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SBI저축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작년 7월에 신설된 따끈따끈한 부서다. 마치 알파고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인 ‘머신러닝’을 활용한 CSS(Credit Scoring System: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새롭게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CSS와 마케팅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 중에서 우리 SBI저축은행이 핀테크 활용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궁극적으로는 우리 저축은행의 수익에

기여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신설 부서다운 패기로 부서의 목표를 말하는 김상우 이사의 표정이 이세돌 기사 못지않게 자신만만해 보인다. 핀테크TFT는 총 4명으로 이루어진 소수정예 부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김상우 이사를 필두로 정보수집 고도화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한 통합 DB 구축과 운영을 기획하는 김정훈 과장, 핀테크기업과 O2O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채널을 확장하고 신규 채널을 통한 기존상품 확장과 신규 금융상품을 기획하는 민세준 대리, 신규 프로젝트 기획과 TFT 추진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강주이 대리, 이렇게 네 사람이 일당백의 마인드로 뛰고 있다.

소통과 단합만큼은 우리가 으뜸

핀테크TFT 부서원 네 사람은 과거 한때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공통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김정훈 과장, 민세준 대리, 강주

이 대리는 같은 날 입사해 같은 부서에 배치된 오리지널 입사동기로 눈빛만 봐도 뜻이 통하는 사이. 그래서일까? 소통과 단합만큼은 핀테크TFT가 SBI저축은행 어느 부서에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부서원들은 자신한다. 새로운 업무를 하는 신설 조직이기 때문에 타 부서와 협업 추진을 할 때 뜬금없이 연락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라도 널리 이해를 바란다는 부탁도 잊지 않는다. 작년 2016년이 부서의 기초를 다지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더 많은 관계와 소통으로 결실을 맺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내놓는다.

“아무리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다 해도 업무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과 가까워지며 진심을 다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독하게 맺어진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시너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 부서원 모두 힘쓰겠습니다. 2017년 핀테크TFT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Mini Interview

① 부서원이 바라본 나 ② 2017년 각오



김상우 이사

- ① 일중독 + 운동중독 + 사람중독 =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완벽남. 가무에도 능한데 가끔은 과할 때가 있습니다.
- ② TFT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으며, 그 과정 속에서 TFT 구성원들 모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정훈 과장

- ① 공대남이지만 누구보다 달콤한 사랑꾼.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불가사의한 체질.
- ② 정보수집 고도화 프로젝트를 잘 수행해서, 2017년에 예상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기준금리 인하 등의 많은 난관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들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둘째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합니다.



민세준 대리

- ① 회사에서는 아이디어 번뜩이는 스마트가이, 집에서는 아들바보.
- ② 저의 업무가 SBI저축은행 다른 동료와 조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가족들의 건강과…… 로또 1등?



강주이 대리

- ① 이보다 자기관리 철저한 사람이 또 있을까? 까칠해 보여도 잘만 안 하면 잘해 줍니다.
- ② 부서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을 순탄히 진행하여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와 모든 분들의 건강한 한 해를 기원합니다.

상큼! 명랑! 발랄! 2017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 ① 나에게 SBI저축은행은?(10 글자)
② 우리 회사에서 가장 달고 싶은 사람은? 그 까닭은?
③ 2017년 가장 큰 목표는?



일산지점
이윤지 사원

- 1 학교처럼 재미있는 회사
- 2 일산지점 송지연 선배님입니다. SBI희망이끄미 활동을 하며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모든 업무를 실수 없이 빠르게 처리하시는 모습과 누구에게나 친절하신 모습을 보고 1년 뒤에는 저도 꼭 선배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 3 보험자격증을 시작으로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고 성장하는 것이 저의 2017년 가장 큰 목표입니다.



수원지점
배유미 사원

- 1 금세 정들어버린 첫 직장
- 2 늘 '일보다 사람이 먼저'를 실천하시는 수원지점의 지점장님, 대리님, 선배님들 모두 달고 싶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이라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잘 다독여주십니다. 저의 첫 시작을 수원지점에서 하게 되어 그 누구보다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고 수원지점 사랑합니다!
- 3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는데 2017년에는 꼭! 이곳저곳 놀러도 가고, 맛집도 찾아갈 거예요!



종로지점
김유림 사원

- 1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성장
- 2 종로지점 임정환 대리님입니다. 항상 지점 식구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넘치는 긍정 에너지를 달고 싶습니다!
- 3 종로지점 식구들이랑 스키장 가기, 1년 뒤엔 모든 업무를 다 해본 베테랑 직원 되어 있기!



목동지점
강정연 사원

- 1 무궁무진한 성장의 기회!
- 2 항상 밝은 웃음으로 친근하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주시는 목동지점 김아름 선배님입니다. 선배님의 꼼꼼한 업무처리 능력은 제가 꼭 달고 싶은 부분입니다.
- 3 미루기만 했던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업무 지식도 중요하지만, 체력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는 요즘입니다. 2017년에는 다이어트와 건강한 체력 둘 다 얻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지점
전명지 사원

- 1 멀리 뛸 수 있는 구름판
- 2 강남지점 김민정 선배님! 언제나 꼼꼼하고 신속한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객님에게나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선배님의 친화력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 3 저의 2017년 목표는 혼자 두 손 가볍게 해외여행을 떠나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누구와 함께 가야 의미 있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느낄 때가 많습니다.



노원지점
전위수 사원

- ① 내 첫 시작을 함께해 준 곳
- ② 노원지점 운주인 지점장님을 닮고 싶습니다. 지점장님과 함께 일하는 분들이 지점장님을 믿고, 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서 저도 그렇게 믿음을 주고 사랑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③ 혼자 여행 가기



마포지점
이유진 사원

- 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곳
- ② 마포지점 모든 식구들입니다! 서정민 지점장님, 김정주 주임님, 김하영 주임님, 이덕비, 송은지 사원님, 박종환 팀장님까지!
- ③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하기, 지점 실적에 기여하기



포항지점
김다민 사원

- ① 나의 쓸모를 확인하는 곳
- ② 포항지점 이가일 대리님을 닮고 싶습니다. 성격이 시원시원하시고 직원들과의 소통 능력이 정말 뛰어나십니다. 치명적인 몸매 또한 닮고 싶어요. (엄지 척! 특히 뒤통 장난 아님!)
- ③ 자동차 사서 직접 몰고 대구 가기(대구가 집이에요!)



이수지점
허민임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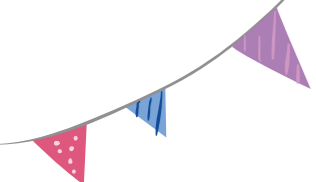
- ① 크리스마스처럼 설레는 곳
- ② 이수지점 모든 식구들이 닮고 싶은 분들입니다. 바쁜 날에도 힘든 날에도 밝은 에너지를 지닌 분들과 늘 웃으며 재미있게 일하다 보니 첫 직장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③ 믿음이라는 저의 이름처럼 정확한 업무 처리로 고객과 SBI 임직원들에게 "이름값 한다"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숙한 점이 많지만 1년 뒤에는 신입 텔러 7기도 잘 인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겠습니다.



대구지점
오자영 사원

- ① 넉넉해 굴러들어온 행복
- ② 꼼꼼한 업무 처리와 친절함 고객응대, 넓고 고운 마음씨와 당당한 태도를 지닌 이진샘 책임주임님을 닮고 싶습니다
- ③ 사랑 받는 아기곰 되기가 2017년 저의 목표입니다. 든든한 아빠곰 김정훈 지점장님, 따뜻한 엄마곰 이진샘 책임주임님, 멋진 삼촌곰 오효준 팀장님, 천사 같은 언니곰 김지은 선배님, 최지혜 선배님, 최가희 선배님, 장지혜 선배님과 함께 곰 식구의 막내로서 멋지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금융서비스
운영부
김재경 주임

- 1 나를 완성시킬 수 있는 공간
- 2 회사생활에 적응하고 업무를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정보시스템실 식구들 모두 닳고 싶습니다!
- 3 너무 바쁜 2016년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2017년에는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제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늘릴 생각입니다!



CSS부
조현일 주임

- 1 새로운 시작 새로운 터전
- 2 CSS부 모든 식구들, 그중에서도 특히 김남열 부장님! CSS부 모든 부서원들은 제가 회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늘 웃는 얼굴로 저희를 대하시는 부장님처럼 회사에 긍정 에너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 3 첫 번째는 새로운 직장의 새로운 부서에서 잘 적응하여 성과를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싶고, 두 번째는 인생의 영원한 짝을 찾는 것입니다. 요즘은 결혼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부러운지!



오토금융부
김승욱 과장

- 1 오랜 친구와 새로운 가족
- 2 가식 없고 진실한 대화가 몸에 배어 있는 유재준 부장님을 닳고 싶습니다.
- 3 금연, 절주, Good Listener

SBI Life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세요.
칭찬에는 발이 달려 있고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축복으로 피어난 둘만의 비밀

리테일기획부 김재홍 주임 &
지점관리부 임리나 대리

팬텀(Phantom)은 가스통 르루의 소설 '오페라의 유령'을 토대로 만든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인 팬텀(에릭)의 출생 비밀을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으로, 2015년 한국 초연 이후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는 작품이다. 새해를 여는 첫날, <팬텀>을 보러 온 한 쌍의 남녀 역시 '비밀'의 주인공이었다.



모닝콜로 시작한 사랑

풍요와 다산의 상징 정유년이 열리던 지난 1월 1일, 손을 꼭 잡은 남녀 한 쌍이 서울 용산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로비로 들어왔다. 뮤지컬 <팬텀>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은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느라 주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만난 지 4년째인 작년에 결혼에 골인하며 '품절남녀'로 주변의 부러움을 샀던 두 사람. 시작은 '모닝콜'이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었고, 당시 해당 부장님이 출근 시간에 엄격한 분이 라 임 대리가 지각하지 않도록 챙기기 위해 '모닝콜'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지, 지하 철은 탔는지 몇 번에 걸쳐 확인 전화를 했죠." (김재홍 주임)

"당시 햇살론이라는 대출상품 담당을 함께 맡게 되었고, 자리도 옆자리, 나이까지 동갑이라 서 쉽게 친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인사발령 나기도 전에 이미 저를 사내정보망에서 검색해 봤었대요. (웃음) 처음에는 같은 부서고 동갑이라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모닝콜이 매일 계속되니까 점점 수상(?)해지기 시작했죠." (임리나 대리)

뮤지컬 <팬텀>에서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며, 비밀은 언젠가는 폭로된다. 계속되는 모닝콜에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생각하던 임리나 대리. 더군다나 함께 야근을 한 날에 김재홍 주임이 집까지 차로 데려다주자 의심은 증폭됐다. 당시 김재홍 주임의 집은 송파구 문정동, 임리나 대리의 집은 서대문구 남가좌동이었으니 알만하다.



뮤지컬 <팬텀>에서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며, 비밀은 언젠가는 폭로된다.
계속되는 모닝콜에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생각하던 임리나 대리. 더군다나 함께 야근을 한 날에 김재홍 주임이 집까지 차로 데려다주자 의심은 증폭됐다.



추리의 끝에 만난 따스한 진실

의심스러운 점투성이지만 '살마'했던 두 사람이 사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이였을까. 임리나 대리는 김재홍 주임의 한 마디가 계기였다고 회상했다. "그가 '왜 소개팅도 안 하고 남자친구도 안 만나냐고 물어보더군요. 충격이었죠. 이제까지 잘 해왔던 것은 그럼 뭔가. 나만의 착각이었고 역시 같은 부서원에게 베푼 친절에 불과했던 것인가?' 하고 말이죠."

어찌 된 영문인지 묻자 김재홍 주임은 "일부러 떠났던 것"이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당시 충격을 받은 임 대리는 김 주임의 전화를 모두 수신 거부하기에 이른다.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 여자와 그런데도 계속 전화를 거는 남자. 결국, 저녁에는 임 대리가 두 손을 들었다. "뭐가 서운해서 전화를 안 받느냐?", "나는 너를 좋아하는 게 맞는데, 네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옥신각신하던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 그날로 사귀기 시작했다.

두 사람, 007 첩보작전을 펼치다

비밀을 숨기고 몰래 아들을 키워왔던 <팬텀> 속 인물처럼, 이들 역시 연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주변 직원들에게 안 들릴까'를 고민했다.

"둘 다 회사에 워낙 친구들이 많아서 누군가 놀리기라도 하면 '무슨 말씀? 저, 얼마 전 소개팅한 사람 잘 만나고 있어요!'라면서 시치미를 댔죠. 직장에서 시선을 안 마주치려 노력하고, 퇴근은 따로 했다가 밖에서 몰래 만났어요." (임리나 대리)

완벽한 알리바이와 변명을 준비한 두 사람은, 주중에는 아무도 모르게 간식을 주고받고, 주말에는 경주의 워터파크와 한강 공원을 누비며 애정을 확인했다.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날마다 가까이 보며 월급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결혼한 뒤에는 '몰래 연애'의 스릴이 사라져 아쉽다며 너스레를 떠는 두 사람, 그래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함박이다.

한국의 브루클린 '성수동 아틀리에길'



오랫동안 '공장지대'로 유명했던 서울 성수동이 어느 순간부터 전혀 다른 의미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성수역, 독섬역, 서울숲역을 잇는 골목길에 젊은 예술가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세월이 떠밀려 문을 닫은 폐공장이나 창고를 저마다의 빛깔로 꾸며 카페와 작업실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사람들은 마법처럼 바뀐 이 길을 '성수동 아틀리에길' 또는 '한국의 브루클린'이라 일컫는다.



1 <펜누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현지인들이 만든 가내수공품
A 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38-1
T 070-4473-3370



5 <앨리버거> 섯노란 간판의 맛있는 햄버거집
A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07-1
T 070-7572-4345



2 <소녀방앗간> 소녀가 대접하는 청정재료 시골 밥상
A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5길 9-16
T 02-6268-0778



6 <자그마치> 인쇄공장을 개조한 조명 갤러리 카페
A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88 남정빌딩
T 070-4409-7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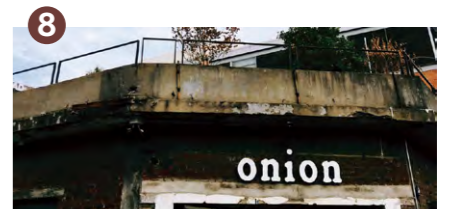
3 <독떡> 독섬에 있는 떡이라서 독떡!
A 서울 성동구 서울숲4길 28
T 02-462-0082



7 <프롬에스에스> 수제화는 성동구(S) 성수동(S)으로부터!
A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13
T 070-4418-6283



4 <우드유라이크> 원목에 디자인을 더하는 나무공방
A 서울 성동구 서울숲6길 16-1
T 010-3605-6814



8 <어니언> 까면 깎수록 매력 있는 공간 탐험
A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9길 8
T 070-7816-2710

겨울철 필수 비타민의 보고 3총사 단호박, 시금치, 브로콜리

요즘 같은 추운 날씨,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꼭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특히 비타민 A, C, D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해 겨울철 질병을 예방해 준다. 노랑계 잘 익은 단호박과 녹황색 채소의 영양이 듬뿍 담긴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각종 비타민을 고루 갖춘 비타민의 보고이자 달고 신선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겨울철 슈퍼 푸드다.



시금치 Spinach

시금치에는 각종 비타민이 가득하다. 또한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 겨울철 뼈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녹색혈액'이라고도 일컫는 엽록소도 풍부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 특히 시금치에 들어 있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암을 억제하고 눈 질환을 예방해 준다. 하우스에서 재배된 것보다 차가운 해풍을 맞고 자란 심초가 더 달고 영양가도 높다.



단호박 Sweet Pumpkin

단호박은 비타민 A, C, D, E 등을 골고루 함유한 비타민의 보고다. "동지에 넣은 호박 한 통이면 풍을 이긴다."는 말이 있을 만큼 호박은 노화를 방지하고 기력을 회복시키며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또 씨와 씨를 감싸고 있는 부분에는 레시틴 성분이 풍부해 치매 예방에 좋다. 호박의 노란색에 든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공급원으로 암을 억제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여름에 수확해 저장했다가 겨울에 먹는 것이 가장 달고 맛이 좋은데 같은 크기라도 들여보았을 때 좀 더 무겁고 골이 진하게 패인 것이 훨씬 달다.



브로콜리 Broccoli

브로콜리는 여러 종류의 항산화 식품 중에서도 셀레늄의 함량이 매우 높다. 하루에 반 통 정도만 먹어도 폐암, 위암, 결장암, 직장암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유방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 브로콜리에 들어 있는 설포라페인이라는 항암 물질은 위암과 위궤양의 원인 균인 헬리코박터파일러를 없앤다. 꽃대가 너무 피지 않고 자랐던 것이 달고 맛있다.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에서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1. 서로 다른 곳을 찾아 위쪽 사진에 표시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세요.
2. 3월 3일(금)까지 홍보부 여성환 대리(ysh@sbisb.co.kr)에게 답을 보내 주세요.
3. 정답을 보내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